

장백산천지

제 338 호

2018 년 10 월 30 일

화요일

아시아 여러 나라의 파룬궁 수련생들, 서울에서 대형 퍼레이드행사 개최

[밍후이왕] 2018 년 10 월 13 일. 영롱한 가을 햇살아래 한국의 수도 서울에서 아시아 지역에서 온 2000 여 명의 파룬궁(法輪功)수련생들이 아시아법회를 경축하는 성대한 퍼레이드(대행진)를 진행했다.

대만, 일본, 베트남, 홍콩, 마카오,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태국, 스리랑카, 한국 등 10 여 개 국가와 지역에서 온 파룬궁(法輪功) 수련생들이 단체 연공을 한 후 대형 퍼레이드를 서울시 중심가에서 펼쳤다. 퍼레이드는 4km 구간을 질서가 정연



하고, 상서롭고 장중하게 진행했다. 이르는 곳마다 수많은 시민들의 이목을 끌었는데, 많은 사람들은 음악 박자에 맞춰 퍼레이드행렬과 함께 오랫동안 걸었으며, 파룬궁전단지를 열정적으로 받았다. ◇

같은 아시아사람,
그들은 심신의 이득을 받다



[밍후이왕] 2018년 10월 13일, 아시아 지역에서 온 2000여 명의 파룬궁(法輪功) 수련생들이 아시아 파룬따파(法輪大法) 심득 교류회에 참석했다.

사회 엘리트의 감격

전 올림픽 수영 금메달리스트인 한국 파룬궁수련생 황샤오민(黃曉敏 그림 1)은 과거 선수 시절 무리한 훈련으로 심각한 질병에 걸려 고통을 받다가, 1996년 파룬따파(法輪大法)수련을 시작한 후 철저히 개변됐다. 그녀는 “리홍쯔(李洪志) 사부님께서 저에게 두 번째 생명을 주신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건강한 신체를 갖게 되어 오늘처럼 이런 성대한 행사에 참가할 수 있게 해주신 우리 사부님께 감사를 드립니다.”고 말한 뒤, “같은 아시아에 속한 중국 대륙에 있는 파룬궁수련생들은 지금까지도 박해당하고 있기에 오늘 한국에서 개최되는 아시아 수련생들의 성대한 행사에 참가하지 못했습니다. 하루 빨리 이 박해가 종식되길 바랍니다.”라고 말했다.

인도네시아 화교 전가족의 한국행

인도네시아에서 온 파룬궁수련생 황의런(黃義任 그림 2)은 당시 36명의 서양 파룬궁수련생들이 텐안먼(天安門) 광장에서 파룬궁 현수막을 펼쳐 중국공산당에 의해 추방된 사건관련보도를 보고

파룬궁에 관심을 갖게 되어 답을 얻으려고 했다. 생각 밖으로 파룬궁은 자신이 그 동안 미혹 속에서 찾고 있던 공법이었다.

이 때문에 그의 아내와 세 아들도 수련에 들어왔다. 황의런은 “저의 세 아이는 수련 후 건강이 매우 좋아졌을 뿐만 아니라 마음씨도 착하게 되어 지금까지 누구와도 다투지 않았으며, 학습 성적도 우수하다.”고 말했다.

그는 “전 세계가 모두 파룬따파(法輪大法)가 좋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공산당만이 파룬궁을 탄압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 온 가족은 특별히 전통 민속복장으로 차려 입고 세인에게 파룬따파의 아름다움을 알리려고 합니다.”라고 했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파룬따파의 아름다움을 알리기 위해

한국 파룬따파 학회 권홍대 회장(그림 3)은 파룬궁수련생의 이런 행사는 아주 큰 의미가 있다고 인정했다. 그는 “현대인은 다수가 물질이 만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행사를 거행해 사람들에게 파룬따파의 아름다움을 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정신적 수양을 중시), 또 파룬궁 수련으로 진선인(眞善忍)에 동화하면 심신건강 증진에도 탁월한 효과가 있다는 것을 알릴 수 있어 뜻 깊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아들과 함께 한복을 입고 퍼레이드에 참여했다는 화가 이원욱 씨(그림 4)는 “공산주의 국가가 자유가 없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죄 없는 자국민을 향해 심각한 탄압을 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라며, 이번 퍼레이드를 통해 많은 시민들이 진실한 상황을 알게 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심신 건강에 파룬궁을 추천

10월 13일 퍼레이드행렬에서 아시아 여러 국가의 전통복식도 만나볼 수 있었다. 고려시대 궁중에서 입던 전통 복장을 입은 김선자(그림 5)씨는 “수련을 할수록 심성이 착해지고 건강은 기본이다. 20년 동안 병원에 가지 않았으며, 건강보험을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파룬궁을 20년 간 수련했다는 파니아 라오라따풍씨(그림 6)는 “수련 전에 저는 늘 아주 피로한 감을 느꼈었는데 수련한 후 건강해졌으며, 끊임없이 마음도 내려놓게 되면서 스트레스가 줄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도 신체건강을 얻으려 한다면 저는 진심으로 파룬궁을 추천합니다.”라고 말했다.

베트남 파룬궁수련생 원티빅평(그림 7)은 5년 전 친구의 소개로 파룬궁을 시작했다며 “수련하기 전 신체가 아주 좋지 않아 여러 번 수술을 했습니다. 파룬궁을 수련한 후 건강을 완전히 되찾았습니다.”라고 말했다. ◇

조선족 김순녀 19일만에 구타받아 사망

중국공산당의 파룬궁에 대한 잔혹한 박해 중 푸순(抚顺)시 조선족 파룬궁수련생 김순녀씨는 5차례 납치당했으며 2002년 11월에 억울하게 13년 징역형을 선고받고 2003년 4월 8일에 랴오닝(辽宁)여자감옥에 감금돼 전기곤봉(电棍)의 충격을 받았고 호되게 매를 맞았고 벌을 받는 등 고문구타를 당했다. 2015년 4월 5일, 김순녀는 만기 되어 출옥했다.

2018년 9월 19일, 푸순시 순청구 신화가도 순다사회구역(顺城区新华街道顺大社区)에 가 증명서류를 떼는 과정에 순청구 신화파출소에 의해 납치됐다. 당일 푸순시 구치소에 끌려가 박해 당했다.



■ 조선족 파룬궁 수련생 김순녀

10월 16일, 구치소에서 가족에게 전화로 김순녀가 푸순시 중심병원에서 구급치료를 받고 있다고 했다. 가족이 병원에 갔을 때 김순녀는 혼미상태에 처해 있었다.

구치소에서는 책임을 밀어버리기 위해 가족에게 서명하지 않으면 중하게 판결하고, 서명하면 집에 보내겠다고 위협했다. 김순녀의 딸이 서명한 후 김순녀의 남편과 딸이 4일간 간호했는데 김순녀는 일어나지 못하고 10월 10일 오전 4시가 넘어 억울하게 66세로 세상을 떠났다.

병원의 사망증명에는 ‘뇌경색’이라고 적혔다. ◇

美 국회 인권보고서 “중공산당, 파룬궁 박해 지속”

미국국회 및 행정당국중국위원회(CECC)는 2018년 10월 10일 ‘2018년 중국인권과 법치상황보고’를 발표했다. 보고에서, 중공이 인권을 침범하는 행위가 계속 악화되고 있고, 중공은 여전히 파룬궁 수련생, 가오즈성 등 인권 변호사와 소수민족단체를 박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제조약은 파룬궁 수련생의 장기를 포함한 감금자의 장기가 이식에 사용될까봐 우려했다. 보고에서는 중공 정부의 인권과 법치를 무시하는 작법에서 중국인이 가장 큰 영향을 받는다고 말했다.

비정부조직 ‘대화(对华) 재단’은 중국 공산당 사법 자료은행(数据库)에서 2017년에 800명이 징역판결 받았는데 그 중 대부분은 파룬궁 수련생이라는 것을 발견했다. 보고에서는 중국 공산당은 계속 법률 외의 행정수단으로 마음대



10월 10일, 미국 연방 상원의원, ‘미국 국회와 행정당국 중국위원회’주석 Rubio(오른쪽)와 ‘미국 국회와 행정당국 중국위원회’공동 주석 Chris Smith가 美 국회 인권보고를 공포하다.

로 감금시킨다고 했다. 중국공산당은 계속 “x교를 이용해 법률실시를 파괴한다”는 구실로 파룬궁수련생을 포함한 신앙 단체를 기소한다. 보고에서는 중국공산당은 예전과 마찬가지로 계속 파룬궁수련생을 감금하고 그들을 학대한다고 지적했다.

당일 기자회견에서 미국 연방 상원 의원, ‘미국 국회와 행정당국 중국위원회’주석 Marco Rubio는 중국 공산당의 종교탄압은 미중관계에도 상해를 주었다고 표시했다. 그는 “중공이 보편가치의 기준을 준수할 것을 요구 합니다. 이는 다만 미국의 국가안전, 경제이익과 도덕가치관을 촉진할 뿐만 아니라

더욱이 바로 평화를 추구하며 가장 기본적인 권리 보호와 진정한 정치개혁을 진행할 것을 요구하는 중국 국민의 기대이기도 합니다.”라고 말했다.

Marco Rubio는 죄책이 있는 중국공산당 관원을 제재할 것을 건의했다. 그는 “우리는 오늘, 어느 때든 포함하여 중국에 대한 비평은 모두 중국인민을 대상하지 않는다. 이 비평은 중국공산당과 중공당국을 대상한다. 우리는 중국인민을 아주 존중한다. 중국문화는 오랫동안 인류에 대해 중대한 공헌을 했다.”고 표시했다.

미국 국회 하원의원, “미국 국회와 행정당국 중국위원회”공동 주석 Chris Smith는 “중공의 종교단체, 인권변호사에 대한 탄압은 문화대혁명 이래 가장 엄중하다.”고 지적했다. ◇

당신은 알고있는가:



■ 휘발유가 탈 때면 500도 이상의 온도이다. 이런 고온에서 왕진 등은 등직하게 앉아 움직이지 않고, 머리로 불에 타지 않았으며, 경찰은 그의 신변에서 소방담요를 들고 있다가 그가 구호를 다 외친 후에야 비로소 담요를 그의 머리에 씌웠다. 이는 연출이 아니고 무엇인가? ◇



‘파룬따파하오’를 성심으로 읽고 뇌종양과 식도암이 전부 나왔다

[밍후이왕] 남편은 2007년 7월에 시 병원에 뇌종양 진단을 받았다. 뇌종양은 신경을 압박해 언제든지 사망할 수 있었다. 의사는 즉시 수술해야 한다고 했다. 수술을 다음날 아침 8시에 시작해 4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오후 2시가 되어도 남편이 나오지 않았다. 우리는 걱정됐다. 70여세 시어머니는 아들이 사고가 난 건 아닌지 더욱 걱정하셨다. 오후 4시가 넘어서도 나오지 않았다. 의사는 아들에게 알려줬는데 수술 과정에서 종양을 찾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때 나는 속으로 리홍쯔(李洪志) 사부님께 안전하게 수술실을 나오게 해달라고 간청 드렸다. 속으로 사부님께 말씀드렸다. “그는 중국공산당의 해악을 깊이 받아 대법을 미워하고 제 수련을 방해하고 제 대법 책을 없애고 대법을 욕하고 사부님과 대법에 죄를 지었습니다. 사부님께서 용서해주십시오. 이번에 병이 나오면 남편은 사부님과 대법에 잘못을 뉘우칠 것입니다.” 그때 나는 시누이와 시어머니께 속으로 진심으로 묵묵히 ‘파룬따파하오(法輪大法好)’ ‘쩐싼런하오((眞善忍好)’를 끊임없이 염하라고 했다.

오후 6시가 넘어서 의사는 종양을 꺼냈다. 남편은 죽은 사람 같았고 결국 중환자실에 들어갔다. 밤 12시에 남편은 깨어났지만 사지는 움직이지 못했다. 나는 사부님의 설법이 있는 MP3를 남편 귀에 꽂아주었다. 그에게 사부님 설법을 들려주었고 매일 듣게 했다. 이렇게 보름도 되지 않아 남편은 퇴원했다. 의사와 간호사도 모두 기적이라고 했다.

집에 돌아온 후 나는 남편에게 이번은 우리 사부님께서 당신을 구했기에 대법을 반대하지 말라고 했다. 나는 남편에게 수술한 과정을 말해주었다. 그는 반신반의 했

고 믿는 듯 마는 듯 했다. 사부님의 설법을 들어도 때로는 날 때리기도 했다. 나는 줄곧 사부님께서 그를 구해주셨다고 생각했다.

2012년 남편은 아들에게 머리가 좀 아프다고 했다. 아들은 그를 데리고 시 병원에 가서 검사했다. 뇌종양이 재발했고 식도암, 당뇨병, 탈장도 있었다. 이번에는 좀 심했다. 나는 남편이 또 응보를 받았다는 것을 알았다. 이번에 두 번째 수술을 받았다. 이번에 뇌종양과 식도암을 함께 수술을 받았다. 수술한 후 몸 한쪽이 마비됐다. 먹고 마시고 배설하는 것은 모두 침대에서 해야 했다. 치료 과정에서도 나아지지 않았다. 증상은 갈수록 심해졌다. 결국 매일 고열이 나고 체온은 40여도가 됐다. 의사는 각종 약물로 열을 내리게 하고 매일 얼음으로 열을 내리려 했지만 열은 내리지 않고 1주나 내리지 않았다. 나는 의사가 방법이 없는 것을 발견했다. 게다가 매일 수천 위안의 돈을 내야 했다. 우리는 퇴원하기로 결정했다. 의사는 동의하지 않았고 집에 돌아가 무슨 일이 생기면 책임지지 않는다고 했다. 그리하여 아들이 서명했다. 이렇게 우리는 집으로 돌아왔다.

집에 돌아온 후 남편은 침대에 누워 온몸이 뻣뻣했지만 청각은 있었다. 나는 즉시 그에게 사부님의 설법 녹음을 들려주었다. 남편은 며칠간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다. 나는 남편이 구도되는 것은 그에게 달렸다고 생각했다. 매일 남편에게 사부님 설법을 들려주었다. 며칠이 지난 후 나는 남편을 거실에 데려다 놓았다. 왜냐하면 아들은 출근하고 나 혼자 집에 있었기 때문이다. 거실에 사부님의 사진이 있었다. 나는 그를 안아 사부님 법상 앞에서 “리홍쯔 사부님 저를 좀 구해주세요”라고 외치라고 말했다. 연속 3번 말하게 하고 나는 또 남편을 거실 소파에 눕혔다.

다음날 남편은 몸을 움직일 수 있었고 번기에 앉아 대소변을 볼 수 있었으며 스스로 밥을 먹을 수 있었다. 수술 후 줄곧 내가 밥을 먹여주었다. 또 며칠이 지나자 남편은 집안에서 천천히 걸을 수 있었다.

집안사람은 모두 대법의 신기함을 보았다. 파룬궁 사부님께서 너무 자비롭고 위대하시다! 나는 매일 세심하게 남편을 돌봐주고 남편에게 매일 대법 사부님의 설법을 듣게 했다. 이렇게 매일 남편은 서서히 나아졌다.

그가 움직일 수 있을 때 나는 그에게 파룬궁 5장 공법을 가르쳐주었다. 그는 따라서 연공했다. 하루하루 이렇게 견지하자 그의 몸은 점차 정상으로 회복됐다. 이 과정에서 그는 느낀할 때도 있었지만 나는 남편에게 말했다. “대법이 당신을 구했어요. 마음속으로 감사의 마음을 가져야 해요. 어린애처럼 그러지 말아요. 사부님을 굳게 믿고 대법을 굳게 믿어야 해요. 매일 사부님의 설법을 듣고 연공해야 해요. 그래야 당신의 생명을 구할 수 있어요.” 그는 머리를 끄덕였다.

그 후부터 그는 내가 말한 대로 하고 더는 그런 상황이 나타나지 않았다. 현재 그는 내 수련을 지지하고 때로 나를 도와 진상지폐도 만든다.

친척과 친구, 이웃도 모두 대법의 기적을 목격했다. 현지 정부, 파출소, 촌위원회에서 자주 나를 방해했지만 지금은 나에 대한 태도도 좋아졌다. 그들은 모두 남편이 두 번 수술한 것을 알고 있다. 내가 파룬따파를 수련하지 않고 대법의 보호가 없었다면, 일반인이 라면 남편 같은 상황에서 이미 사망했을 것이다. 어떤 인연 있는 사람이 이 일을 알고 대법 진상을 알게 됐고 수련으로 들어왔다. ◇ 글/ 쓰촨 대법제자